

2017년 한해,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이제, 각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또 이제, 다락방 가족 전체 많은 교회들이 대표적 교회로 일어나는 시간표를 찾아야 되겠다. 예원교회, 임마누엘교회 같은 데서는 10만 성도를 만들어야 한다. 방송 듣는 많은 교회들은, 여러분 지역에서 사람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업, 학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1강에서 말씀드리겠다. 제3 RUTC운동, 이렇게 하면서, 제목에 '치유전문집중학교'라는 말을 썼다. 쉽게 말해 치유스쿨인데, 이것은 받을 응답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하려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올바른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 올바른 치유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올바른 치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진도를 보면, 바울이 한 진도 대표 세 가지를 꼽아보면, 치유였다. 일단,

서론 : 알면 문이 열린다

여러분이 알면 문이 열린다. 무엇을 말인가?

(1) 지금 날이 갈수록 병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 정신병이 급증하는 것이다. 나는 의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쓰는데, 그냥 정신병이다. 전문인들은 정신병이 그것이 아닌데 할 수도 있다. 이해한다. 내가 볼 때는 통틀어, 정신에서 온 병이다 그 말이다. 마음의 병이다. 이게 급증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급증하는가 하면, 아이들도 정신이 이상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우리 멤버가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정신 치료, 심리 치료하는데, 석 달이 밀려 있다고 한다. 이런 작업들을 누가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빨리 알 것이다. 우리가 21세기에 진짜 진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수도권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제대로 하려면, 이번에 완전히 분석해야 한다. 이런 병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러다보니까,

(2) 각종 치유 단체, 치유 팀들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가 하면, 치유혼란시대가 왔다. 교회만 가만히 있지, 치유혼란시대가 왔다. 이 말은, 그만큼 병자들이 많다는 말이다. 눈에 안 보이게 의료인들, 심리상담하는 사람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무식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의사를, 병을 어떻게 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느냐' 의사들이 볼 때는 답답한 것이다.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심리치유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고치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만 잘 해 가지고.' (웃음) 이런 갈등들이 있다.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법적 문제도 올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치료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그런데 일찍이 공부하고 훈련받은 의사들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하다 싶은 것이다. 두 개 다 합치면, 공통점은, 잘 안 낫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는 점점 혼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막 들어간다.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순간 충격적으로 가능하지만, 거의 자살하는 이것이다(서론-(1)). 물론 심한 충격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물다. 심각한 마약에 빠진 자, 전부 이것이다(서론-(1)). 심각한 중독에 빠져서, 도박에 빠지고 그런 것은 전부 정신병이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다. 각종 단체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특징이 몇 가지 있다.

- ① 명상이다. 이것을 하면 일단 효과가 난다. 왜 효과가 나는가? 명상할 때만 뇌가 치유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진짜 기도할 때만 내가 치유되는 것이다. 명상을 프로그램으로 꼭 하니까 뇌가 치유될 것 아닌가. 그러니 사람이 막 몰리는 것이다.
- ② 그런데다가, 요약해 버리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 1) "의식을 치유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치유해야 하고"
 - 2) "능력도 여기에서 끄집어내야 한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바램에 더 영향이 갔다. 단어는 약간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 3) "완전 무의식 속에, 여기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치유가 안 일어나고, 나중에는 계속 문제가 생긴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낮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다. 어머머만한 진도의 큰 발인데,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오늘 그 답을 얻어야 한다. 그 답을 얻기 전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영상을 잠깐 한 번 보겠다.
[영상 - 국내외의 템플스테이, 마음치유, 명상운동, 호흡운동]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저런 태를 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몸이 안 아파도 저런 프로그램을 듣거나 접하면, 가고 싶어진다. 저 영향이 전국, 세계교회 합친 것의 수백 배로 가고 있다.

③ 그런데 저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하나냐, 굉장히 매력적인 말을 한다. '참된 나를 찾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게 말아야' 참된 나를 찾고 싶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주인은 따로 있다. 인간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주인이 '나'라고 가르친다. '나의 주인이 나'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또, 그 말을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내

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인 것 아닌가. 내가 주인일 것 같으면,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날짜 맞춰서 죽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이다. 그런데 인간의 주인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파고드는 것이다(참된 나). 그러니까 계속 포장하게 된다. 깊이 찾아낸다. 백일로, 삼년으로 하면서 찾아낸다. 굉장히 기쁘게 있다. 그렇지 않다. 주인은 사단인데, 기쁨도 있다. 많은 성공도 잠시 온다. 그런데 정령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이러다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3)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은 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에게, 이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발악하게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서론-(2))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의 특징들이 주로 자기중심이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나를 찾고 여러분도 당장 일할 때 그러지 않는가. 내가 뭘 해야 하고 내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 나온다. 어떤 특징이 나왔는가?

본론 : 의료전문인, 복음 가진 자, 비전문인(모든 사람)

의료전문인, 이 사람이 굉장히 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의사 누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의료전문인들은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한다. 각종 분야의 전문인들은 누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진짜 담 언어버리면 굉장히 쓰임받는 시간표가 온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일어났는데, 복음 가진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의료전문인, 혹은 심리전문인, 이런 전문인들이 고친 게 아니다. 거의 현장에서 비전문인들에게 역사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 어째서인가. 의사 누가가 고친 게 아니다. 누가가 충격받아서 본 것이다. 의사는 진정한 의료인이고 진정한 복음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이 고쳐진 것을 본 것이다. 이것을 가깝없이 기록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답을 주신 것이다. 모든 여러분들이 진도 현장에서 봐야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인, 이런 비전문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전문인이 필요 없다' 하게 된다. 그러면 비전문인, 사이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가? 아니다. 전문인들은 의사 누가처럼 일어나야 한다. 비전문인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이유다.

1. 영적 치유

첫째다.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다. 아무리 의식을 가지고 인지치료를 하고 잠재의식을 가지고 분석치료를 하고 다 해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치료들이 무엇인가?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다.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남을 도와주고 치유한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안 되니까 병자가 더 많아졌다. 무수한 하나가 있어서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더 영적인 문제가 와 버렸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들린 자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더 문제가 와 버렸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에베소 지역의 큰 신전이. 더 큰 문제 온 것은 좋는데, 치유가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안 되는 것이다.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의사 누가는 알고 있었다.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창세기 3장, 6장, 11장). 원죄가 되고, 근본문제가 되고, 영적문제가 되는 3장, 6장, 11장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 못 한 것이다. 실제 여섯 가지 나의 삶, 나의 환경을 치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 일어나게 하셨는데,

(1)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버린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진도다. 이게 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 표시 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진도운동을 해야 한다. 어제 부산에서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당신들은 중요하다. 시대, 지역 지명을 전도자가 되라. 부산에 한 10만 명 진도체제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치유, 하나는 서밋이다. 이 운동이다." 성경은 그 운동이었다. 성경은 치유운동이었고 서밋운동이었다. 그렇지 않다. 서밋은 오후에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 이 영적인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치유되지 않는다. 이 뿌리(창3, 6, 11)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삶(6가지)을 치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이다.

(2) 그래서 이 마음의 병,
(3) 생각의 병,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은 마음의 문이고 소통하는 길이나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일리는 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영적인 병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 생각의 병은 고칠 수도 없고, 고쳐도 소용이 없다.

2. 전인치유

어떻게 말인가? 여러분 교회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전인치유되면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전인치유가 무엇인가? 각인된 것을 치유해야 한다. 여러분, 뿌리를 치유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체질을 치유해야 한다.

- (1) 각인을 치유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다.
- (2) 뿌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답은 사단의 세력을 쫓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지 않나?

아무리 방법을 써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사단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다.

(3) 그래서 체질을 치유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가라.

자, 알면 문이 열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내년에 곳곳에서, 치유 같은 것 티내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복음으로 다 살려내는 것이다.

3. 집중 포인트

무엇인가?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운동하고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인가 하나, 집중인데, 그래서 모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나, 말씀, 기도, 삶이다.

(1) 말씀은,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치유 집중 포인트를 찾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현장 가면 무너진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면 무너지는 것이다. 고 치기는커녕 점점 병든다. 그래서 말씀 잡고 24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열쇠다. 24 포인트를 어디에서 찾아주는가? 전에 지혜 있는 엄마 하나가 나왔다. '우리 아이는 잘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노는 것만 잘 한다.' 방송에 나온 엄마의 이야기다. '영어 공부하고 외국 보내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엄마는 영어를 하지도 못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 애가 잘 하는 것은 한 개 뿐이다. 먹고 노는 것이다.' (웃음) 그래서 노는 영어를 찾아낸 것이다. 장난치고 노는 것이 있지 않나. 노는 영어만 찾아서 아이에게 갖다준 것이다. 이 아이가 영어 도사가 되어 버렸다. 방송에 나왔지 않나. 실제 외국인 사업가가 왔는데 통역하고 그랬다. 영어를 어디에서 배웠느냐 했더니 엄마에게 배웠다고 한다. 엄마 불러서 물어봤더니 영어를 못 한다. 이 엄마가 아이에게 24 포인트를 찾아준 것이다.

(2) 기도의 24가 있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영적인 병은 그때부터 치유된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올해에, 기도 24 하라, 못 한다. 24 포인트를 찾아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잘 두는 이유가 있다. 바둑 24다. 바둑 24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바둑 24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보면 골프 24다. 여러분처럼 따라나가서 치고 이레가지고는 안 된다. (웃음) 맨날 숙만 상한다. (웃음) 24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찾아줘야 한다. 이것이 무슨 금방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

(3) 삶의 24 포인트는 무엇인가.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이게 집중이다. 그러면 약간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 큰 능력 얻어도 된다. 많이 도 닦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체질도 안 되면서 도 닦으면 미쳐버린다.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맨먼트 일곱 명을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 포인트를 설명해라. 잘 참고해야 한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잘 생각해라.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증인 되어야 한다. 수도권 살리고, 부산 지역 살리고, 각 지역을 살려야 할 것 아닌가. 간단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하다. 이 사람들을 살리면 그 사람도 살아내고 지역도 살아내고 국가도 살아내고 다 살아난다. 국가에 정신 병자,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우글한데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먹지지를 않는다. 사회는 자꾸 어려워진다. 이 사람들이 몇도 모르고 교회를 굉장히 무시한다. 교회가 무시당할 만도 하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복음 안 전하면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올바른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한다. 그러니 욱먹는 것이다.

4. 치유스쿨

네 번째 것을 보셔야 한다. 치유전문집중학교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는 것이다. 치유스쿨인데, 이 말을 왜 썼느냐는 말이다. 모든 중국, 모든 조지들이 연합해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영성하는 팀들, 치유하는 팀들, 전체 회의를 하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이라면, 치유가 뭔지 정말로 안다면, 이것만이 전도하는 길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라. 12가지 문제 중에, 창세기 3, 6, 11장 해결한 것이 원죄 문제 해결이다. 그게 구원이다. 전도의 방법이 사도행전 13, 16, 19장, 그 치유다. 나머지 것은 무엇인가? 여섯 가지는 삶을 이야기한다. 환경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똑똑한 부교역자가 일어날 것이다. 말 알아들으면 한 지역에서 오직 전도운동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역의 수백 명이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교회 부흥도 간단하다. 수백 명이 살아나는데, 너무 쉽게도 하지 말고, 진짜 복음만 하면서, 눈에 안 보이게 살려내야 한다. 꼭 명심해야 한다. 제3 RUTC운동은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살짝살짝 비밀로 한다는 압박한 단어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나타나는데 복음이 나타난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내 자랑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다. 우리는 전혀 떠들지 않는데 교회에 생명이 모여드는 것이다. 제3 RUTC운동이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 올바른 서밋 운동이다. 서밋은 오후에 이야기하겠다.

자, 이것을 잘 한 번 보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볼 때, 성경을 보라. 성경에 치유운동 일어난 현장을 봐야 되겠다. 사도행전 3:1-10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의사 누가가 일으켜세운 것이 아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의사는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사도행전 8:4-8을 보라. 평신도 집사가 가서 치유해 버린 것이다.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의사가 못 하는

것을 했다는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현장에서 역사 일으키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의료인이 들어가서 한 게 아니다. 의료인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코치하고 기록한 것이 의료인이다. 올해는 의료인들, 전문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것도 만들어라(4). 앞의 것들이 되면 역사 일어난다. 그런데 꼭 참고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부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1) 가정 치유.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꼭 치유하려면, 그 사람 한 명만 병자 취급하면 안 된다. 가정치유.

(2) 교회 적응 안 되면 안 된다. 교회 치유. 이것은 뭘 말하는가?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교회 무시하는데, 집에 가면 괜찮다. 교회 가면 이상해진다. 그게 이상해진 게 아니고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맨먼트 총국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목상운동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

(3) 적응 치유가 되어야 한다. 영적인 부분은 하나로 모여져 있다. 집에서 영적문제가 가득차 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의사가 못 고친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사도행전 3장, 8장, 13, 16, 19장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었다. 본부에서 참고해야 한다. 여러분 것 하나만 해서 안 된다. 전체가 함께 맞아줘야 한다.

(4) 심지어 무엇인가? 현장 가서 일어나는 일에 치유가 되어지는 것까지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 치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현장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한 군데 같이 있다가 약간만 다른 데 가도 안 되어진다. 이것을 조금만 알면 굉장한 도움을 주고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삶도 치유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고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을 알고 있어야 실제로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장애인들은 장애인학교를 보내지 말고 일반 학교를 보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일반학교가 장애인 취급하는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은 영원히 장애인처럼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인가?

(5)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치유. 그래서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다른 부분을 만날 때 또 문제가 와 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심지어 무엇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덕평으로 확실히 가는 게 결정이 되면, 본부에 보고하고, 정식 계약도 하고, 필요하면 지불할 것도 하고, 헌신할 것도 하면서 짜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어른들과 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진짜 한쪽 좋은 데다가, 사랑부들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만큼 사회의 실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전혀 표시도 나지 않게 이 모든 분야에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이 종교단체들이 다 파괴되어가 있다. 기가 찬 일이다.

결론 : 원니스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알고 원니스가 된다면,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1)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정신병들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정신병을 고쳤다. 정신병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데, 아니다. 삶을 보라.

(2) 이 결과로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3) 이 결과로 중독된 병에 빠진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내용은 뭐라고 하는가? 12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언약을 딱 깨달아버리면, 몇 명이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는 지역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된다. 티내면 안 된다. 조용히 들어가라. 큰 교회들이 있지 않다. 임마누엘, 예일 같은 데서는 똑똑한 교역자가 일어나면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부산시내 10만 제자 만드는 주역들이 일어나라." 전도만 하는 전도자. 치유하는 전도자. 서밋 만드는 전도자. 오후에 이야기하겠는데, 서밋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서 쓰는데, 잘 알아야 한다. 서밋, 포럼, 이런 것이 성경의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이 빌려서 쓸 뿐이다. 아주 벌써 16세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sermon forum이 있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아야 한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버리고, 영적인 힘을 가져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입으로, 생각으로 고백해야 한다. 내게 곤란한 일이 생겼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어제 결단 설교했다. 위기? 아니다. 위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 "답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 하여야 하리라." 지금 여기에 여러분은 내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곳은 지구상 유일하게,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들이 모인 것이다. 장소를 여기에 빌렸을 뿐이다. 하나님이 올해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결심하라. '나는 진짜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셔야 한다. '우리 교회를 지역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딱 결단하라. 그래서 목사님들, 부교역자들이 있지 않다. 합내서 전도자로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은 3체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오후에 또 보겠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놓친 것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놓친 것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사명으로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참된 힘을 얻는 참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